



강북구의회  
GYEONGBUK DISTRICT COUNCIL

# 의정활동보도

2015년 8월 31일  
(월요일)

동북일보 4면

5분 자유발언

## 어린이 공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...

유인애 의원

(새누리당/번1·2동, 수유2·3동)

유인애 의원은 셋강 어린이 공원(번1동 472-39)의 노후 시설물 정비와 관내 어린이 공원 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리 계획에 대해 발언하였다.

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공원시설물(그네, 철봉 등)의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시설물의 노후·훼손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매년 초에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.

강북구도 지속적인 순찰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, 번1동 472-39 번지에 위치한 셋강어린이 공원은 1975년 최초 조성되어 2009년 최종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. 이 공원은 각종 놀이시설과 휴게시설,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어 이웃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



▲ 유인애 의원.

이 많은 장소이다. 유인애 의원은 “그러나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설치된 암벽놀이 운동기구와 연필모양의 울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낙상사고 및 미끄럼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” 고 밝혔다.

유 의원은 “어린이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

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노후 된 시설물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교체하고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” 고 주장했다.

또 “안전관리기준에 통과한 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” 고 밝혔다.

이어 유인애 의원은 “강북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서면답변과 함께 셋강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보안·정비를 해달라” 고 집행부에 요청하면서, “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 및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” 고 당부하였다.

〈박은주 기자 jeji718@naver.com〉